海外業界動向

美 Unisys, 日本 Unisys株 賣却

美國 컴퓨터업계는 예상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어, 업계의 수익은 모두 악화일로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것은 메인 프레임 업체인 유니시스이다.

同社는 작년, 三井物産으로부터 邦貨로 약 300億円 정도의 차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도 운전자금을 차입하여, 이 금리부담이 폐 경영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Unisys Corporation은 自社가 保有하는 日本 Unisys의 株式을 점차 市場에서 매각하여, 旣存의 同社特株 3,660万株(33.34%) 중, 약 220万株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特株比率의 2%에 상당하는 것이다. 또한 Unissy와 同額의 日本 Unisys株를 소유하는 三井物産도, 동시에 배당액 삭감의 계획을 발표했다. 日本 Unisys는 동경증시 1부에 上場하고 있는데 今年 5월 중순 현재 株당 3,500円(50円額面) 이상의 低가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리부담에 허덕이는 Unisys에 있어서는, 주식매각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수령액을 증가시켜, 금리부담을 경감할 의향이라고 한다. 만약에 주당 3,00円의 株價로 매각한다면 60億円, 3,500円이라면 70億円의 賣却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식매각에 대하여 Unisys 측에서는 개인투자가 취득하는 浮動株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관계자의 예전부터의 조언에 따른 것인데, 資産運用計劃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Unisy Corporation은, 商業情報 시스템, 방위시스템 및 관련서비스의 제조·판매회사에서 연간 매상액은 약 100억달러(공장 135円 換算으로 약 1조 3,500億円), 100個國 이상에 영업거점을 갖는데, 종업원은 7万名 이상, 유저수는 6万社 이상을 갖는 컴퓨터 회사이다.

美 IBM과 독 Siemens, 16M DRAM 공동생산

美 IBM과 독일의 Siemens는 16Mbit DRAM을 프랑스에서 공동생산할 계획이다.

IBM과 Siemens의 발표에 따르면 생산거점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IBM 공장이다. 기존의 16M DRAM의 생산설비를 일부 활용, 연말에는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투자액은 수억불」(Siemens)로 쌍방이 비용을 분담할 계획이다.

생산은 당초 8인치 웨이퍼를 하루 600매 수준으로 처리, 점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쌍방에서 합계 600名의 전문 요원이 同공장에서 종사할 계획이다. 생산능력 여하에 따라서 他社의 참가도 인정하고 있다.

Siemens는 작년 가을, 뮌헨 공장의 파이롯트 라인에서 생산한 16MDRAM을 샘플 출하하고 있는데, 금후는 프랑스가 同메모리의 量産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同社는 작년 2月, 16M의 次世代 메모리 64M DRAM을 미국에서 공동개발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또한 IBM은 작년에 歐洲의 반도체공동개발 Project「JESSI」로의 참가를 인정하는 등, 日本이 독주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歐美勢에 의한 대응체제라 하겠다.

IBM과 Apple의 제휴, 그리고 일본

일본 컴퓨터업계는 IBM과 Apple Computer가 次世代 컴퓨터 소프트와 워크스테이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휴한 것에 대하여 컴퓨터의 거인 IBM과 퍼스컴의 대기업 Apple과의 제휴인 만큼 名門끼리의 연합이므로 위협이다」라는 중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는 WS分野에서는 今年 들어 세계적 수준의 기업연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IBM은 Apple 勢 반도체 대기업인 Motorola와 결성하고, 컴퓨터의 基本 소프트(OS)인 UNIX의 개발에서, 次世代 WS, WS의 심장부인 RISC(縮小命令 Set 컴퓨터)용 반도체의 개발 등을 대규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제휴는, WS를 둘러싸고 美日歐 기업연합이 결성되는 가운데, IBM의 지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을 IBM이 갖기 때문이다. 또한 美國에서는 컴퓨터 不況이 시작되어서, 미시장에서 1, 2위의 兩社가 제휴하여 공방을 방지하려는 목표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IBM과 Apple의 제휴로, 퍼스컴에서 대형기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를 개발, IBM의 대형기 밑에서 Apple의 퍼스컴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外, 영상, 음성, 문자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멀티 미디어 퍼스컴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의 對대만 하이테크 기술이전 방침

通産省은 22日, 확대 경향에 있는 日本과 대만의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도체 생산 등 日本의 하이테크 기술의 이전을 촉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台湾의 對日貿易赤字의 근본적인 개선으로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첨단기술분야로 전환하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생산기술의 이전에 따른 부메랑 효과에 대하여 通産省은「장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당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日本과 台湾의 무역은, 항상 台湾측의 입초를 보이고, 특히 1986년 이후는 대만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서 日本으로부터의 資本財와 中間財의 수입이 급증, 대일 무역적자액은 해마다 확대되어, '90년에는 사상 최고인 약 70億달러에 달했다.

台湾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台湾의 産業이 日本으로부터 수입한 기계부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인데, 강력히 요망하는 日本의 고도기술의 이전에 측면 협조할 계획이다.

반도체 외, 光 Fiber와 液晶 TV 등의 제조기술이 부상하고 있어, 台湾측의 승낙체제가 정비되면 교류협회와 경제단체 등에 기술자 파견을 권유할 계획이다.

台湾은 작년 7월, 9개 항목의 對日輸入抑制策을 표방했는데, 금년 상반기(2~6월)의 對日貿易赤字는 약 38億달러로 축소되고 있지 않다.

일본, 무선보완 시스템 新技術

일본 郵政省의 電氣通信技術審議會는 최근 무선보완 시스템의 기술적 조건에 대하여 郵政大臣에게 答信했다.

무선보완 시스템은 가정과 사무소, 공장 등의 안전, 방법,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煙센서, 가스검지기, 電氣열쇠, 방범 스위치 등의 각종센서의 동작상황을, 전파에 의하여 300m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중앙 통제기에서 수집하여, 일반가입 전화선 등을 통하여 경비회사 등 원격지의 감사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郵政省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용화 할 예정이다.

LSI Logic, ASIC 지원체제 강화

LSI Logic(東京都港區赤坂 61~20, 80 회장)은 퍼스널 디자인 센터의 확충과 설계기술자·소프트 기술자의 증원 등, ASIC의 지원 체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도쿄 오사카 쓰쿠바의 3곳에 디자인 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데, 더불어 유저가 자사의 사무실에서 디자인 센터와 동일한 퍼포먼스에서 ASIC을 설계할 수 있도록 MDE의 CAD 소프트를 EWS에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퍼스널 디자인 센터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50부수 중 20부스가 퍼스널 디자인센터인데, 금후는 3배의 60부스까지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 건수가 금년은 3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기술자, 소프트 기술자도 최근 1, 2년에 4.5% 증원할 계획이다.

ICL, 소련에 합작회사 설립

富士通의 英國 자회사 ICL은 최근 소련의 컴퓨터 메이커인 KMECS와의 합작회사의 설립에 합의했다는 것을 표명했다.

합작회사는 모스크바와 카잔에 거점을 두며, ICL 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ICL이 60%, KMECS가 40%를 각각 출자하여, ICL측의 출자액은 약 100万파운드(약 2億 3,500万円)이다. 新社名은 「ICL-KMECS」이다.

富士通가 80%를 출자하고 있는 ICL은 1989년에도 소련의 전자메이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KMECS는 蘇聯無線工業省이 소유하며, 종업원은 약 2万名이다.

일본 마쯔시다, 필립스의 DCC 상품화 계획

松下電器는 최근 네델란드의 Philips와 DCC(Digital Compact Cassette) Audio System을 공동으로 업계에 제안해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DAT(Digital Audio Tape Deck)에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2年 이내에 휴대용 녹음기로서 상품화할 계획이다.

DCC는 Philips社가 개발, 업계에 제안한 것인데 松下電器는 同제품의 기초기술면에서 협력하여 공동으로 패밀리 조성을 추진하는 공동라이센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 관련특허는 Philips社로부터 일괄하여 라이센스되어, CD(Conpact Disk)와 거의 동일한 취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동사에 의하면 벌써 하드 메이커 각사가 패밀리 참가에 내정, 소프트에 대해서도 주요 소프트 회사의 찬동을 얻었다고 한다.

상품화에 즈음해서는 DAT와 같이 SCMS(Serial Copy Maragement System)을 채용할 계획인데, DAT는 16bit 처리의 초고급 디지탈 오디오 시스템으로 위치 설정하여, DCC발매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디지탈 오디오 시스템에는 듣기만 하는 CD, 녹음도 가능한 DAT가 있는데, Philips가 DCC를 제안한 후, Sony가 녹음도 가능한 MD(Mini Disk) 방식을 개발 제안하고 있다 電機메이커 오디오 메이커는, DCC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당면은 DAT의 보급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이번 松下電機의 상품화 발표에 의해, 일제히 DCC의 상품화에 착수할 가능성이 강력하다.

일본의 하이비젼 소프트 보급촉진

일본 하이비젼 시티 促進協議會는 하이비젼 소프트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全國 24Model 도시 상호간의 소프트 공동이용 계획을 완성했다. 최근 개최된 동 協議會의 총회에서 '91년도 사업으로서 결정하게 된다.

하이비젼의 소프트는 매우 高額이기 때문에 製作수량이 적어, 이 공동이용계획은 관계자에게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이용계획에 의하면 共同利用이 가능한 소프트는 협의회 회원(하이비젼 시티)이 제작한 動畵 및 정지화인데, 저작권은 공동이용을 전제로 제작측의 회원이 처리한다. 소프트의 이용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회원 또는 회원에 관여하는 공익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 혹은 회원소속의 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 기타 이것에 준하는 사업에서의 이용으로 한다. 공동이용의 창구 소프트 공동이용사업국(당분간은 회장都市)을 설치한다.

또한 공동이용은 부사장용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同사업계획에서는, 공동이용계획외, 심포지엄(12月 4日에서 개최 예정) Model 都市間의 交流會, Hi-Vision City 지원연락회 등의 공동세미나의 개최 등이 예정되어 있다.

日本電氣, 프랑스 Bull에 4.7%出資

日本電氣는 최근, 프랑스 Bull Group의 Bull 社(CMB, 본사 : 파리)에 출자하기로, 각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CMB로의 출자는 同社가 美國 Bull HE(Bull HN Information Systems,)의 株式 15%를 CMB의 주식 4.7%로 等價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CMB는 Bull HN, Bull SA社, Bull Europe社 및 Zenith Data Systems社를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Bull Group 전체와의 관계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Bull SA社는 프랑스를, Bull Europe社는 종전, 영국, 이탈리아 이외의 유럽 및 아메리카, 中南美를 販賣지역으로 생각했으나, 英, 伊, 兩國도 포함되게 되어있다.

자본제휴에 의하여 Bull Group 전체와 제품공급, 기술교류가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일본 샤프, 금년 가을 16M 마스크 ROM 증산

Sharp는 16M 마스크ROM을 今年 가을에 月産 10~20万個로 증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自社의 워드프로세서用으로 月産 2,3万個를 생산하고 있는데, 今年 가을에는 各社에서 16M제품의 채용이 한꺼번에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同社도 대폭증산을 단행한 것이다.

마스크 ROM 전체의 생산량도 현재의 月産 1,300만개 체제에서 금년 가을에는 同 1,500만개 체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同社는 마스크 ROM의 톱 메이커인데, 주력의 8M제품을 중심으로 64K에서 최첨단의 32M까지 폭넓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미 16M는 작년 가을부터 量産을 개시 自社의 워드프로세서에 탑재하고 있다. 금후, 年末의 크리스마스 수요용으로 개발이 추진될 워드프로세서와 업무용 게임機, 전자악기용 등으로 16M제품이 본격 채용되어, 外販需要가 增加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년 가을에는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증산할 계획이다.

SGS Thomson과 GPC, 반주문형 IC 共同開發

프랑스, 이탈리아 合作의 SGS Thomson과 英 GE Plessey Semiconductors(GPC)는 통신, 전산기용 Semicustom IC의 공동개발에 합의, 확대되고 있는 세계의 Semicustom IC 수요에 협력하여 대응하게 되었다.

兩社는 쌍방의 설계자가 상호 이용할 수 있는 Cell Library를 공동으로 설치, 수주에서 納入까지의 所要日數를 半減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 코스트도 서로 분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쌍방은 마케팅과 생산을 독자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兩社는 歐洲의 고도정보처리 共同開發 Project「ESPRIT에서, 이미 CAD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SGS Thomson은, TA Thomson과 伊 STET 양국기업의 합작, GPS는 英 GE가 '90년, Plessey Semiconductors를 매수하여 발족한 기업이다.

프랑스 미니텔, 일본에서 서비스 착수

프랑스의 전기통신사업자인 France Telecom과 일본기업 10社가 공동으로 미니텔 서비스를 일본에서 "일본어 미니텔 서비스"로 사업화하게 되어, 이를 위한 사업화 조사단체「日本語 미니텔 협회」를 최근 설립했다.

미니텔 서비스는 프랑스에서 단말보급대수 약 560万台(작년 12月末 현재) IP 1万 6,000이라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다.

이 미니텔 단말기로 電子電話帳 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홈 쇼핑, 6n—Line발주, Game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화 조사는 今年末까지 6개월 동안 예정하여, 연말에는 日本語 미니텔 사업을 위한 新會社를 설립할 계획이다. 同서비스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America, Deutschland Belgium, Deutchland,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루투갈, 덴마크, 스위스, 네델란드, 영국 등 각국의 미니텔 서비스로의 접근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日本에서는 '89년부터 三井情報開發이 소규모이지만 서비스 중이다.

사업화 조사에 참가하는 일본측 기업은 아스키, 廣告 Orient Corporation(信販), 日本 Tourist, 國連社(廣告) 다이에, 東京企劃(광고 등)도멘, 三井情報 開發, Recruit 등이다. NTT의 同社의 비디오 텍스 네트워크와 미니텔의 네트워크간의 상호접속 등 기술적 문제가 토의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다.